

진화될수록 이빨의 수가 줄어든다구? 🐾

여러분에게 입 안의 여러 구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물체에는 다양한 여러 장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 특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씨가 얼마나 지적으로 설계되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동물들의 악골과 치아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래턱을 움직이지요.

그러나 악어는 턱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위턱을 움직입니다. 치아들을 보면 앞니나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들이 그 모양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원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습니다.

화석에서 발견된 *Canis Familiaris*, 즉 개과에 속한 동물의 치아들을 살펴보면, 앞니가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3개씩 있고, 작은 어금니가 위에 3개, 아래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위, 아래에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들은 이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이에 음식이 끼지 않아 충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인데, 콜리 종입니다.

역시 절치가 3개 있고, 견치가 1개, 아래 소구치 4개, 위에 3개, 대구치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곰은 절치가 3개, 견치가 있는데 상당히 큼니다. 그리고 소구치가 4개, 그리고 대구치가 3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와 같은 치식을 가지고 진화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원숭이는 절치가 개나 곰보다 적은 2개, 견치 1개, 소구치 2개, 대구치가 3개가 보입니다.

오랑우탄의 위턱을 올려다보면, 치아의 배열이 절치 2개, 견치 1개, 소구치 2개, 대구치 3개로 사람과 같고, 대구치는 정중선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긴 오랑우탄이 치아의 수와 배열도 사람과 비슷하니, 이것이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식을 진화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원시포유류	3	1	4	3
원시원숭이류	2	1	3	3
고등원숭이류	2	1	2	3
인간	2	1	2	2(3)

'고등동물로 갈수록 절치가 3개에서 2개로, 소구치가 3개에서 2개로, 대구치가 3개에서 2개로 그 수가 줄어든다. 고등원숭이에 비해서 사람은 비슷한데 단지 대구치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치아의 수가 줄어들수록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니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진화의 예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화의 방향은 치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치아의 모양이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 점점 치아가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과잉치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치조골 속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반대로 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더 많은 사람은 덜 진화되었고, 치아가 적은 사람은 더 진화된 사람이라는 것일까요?

© 「궁금해?궁금해!」, 한국창조과학회 제공